

2016 10월~12월 vol. 15
Pami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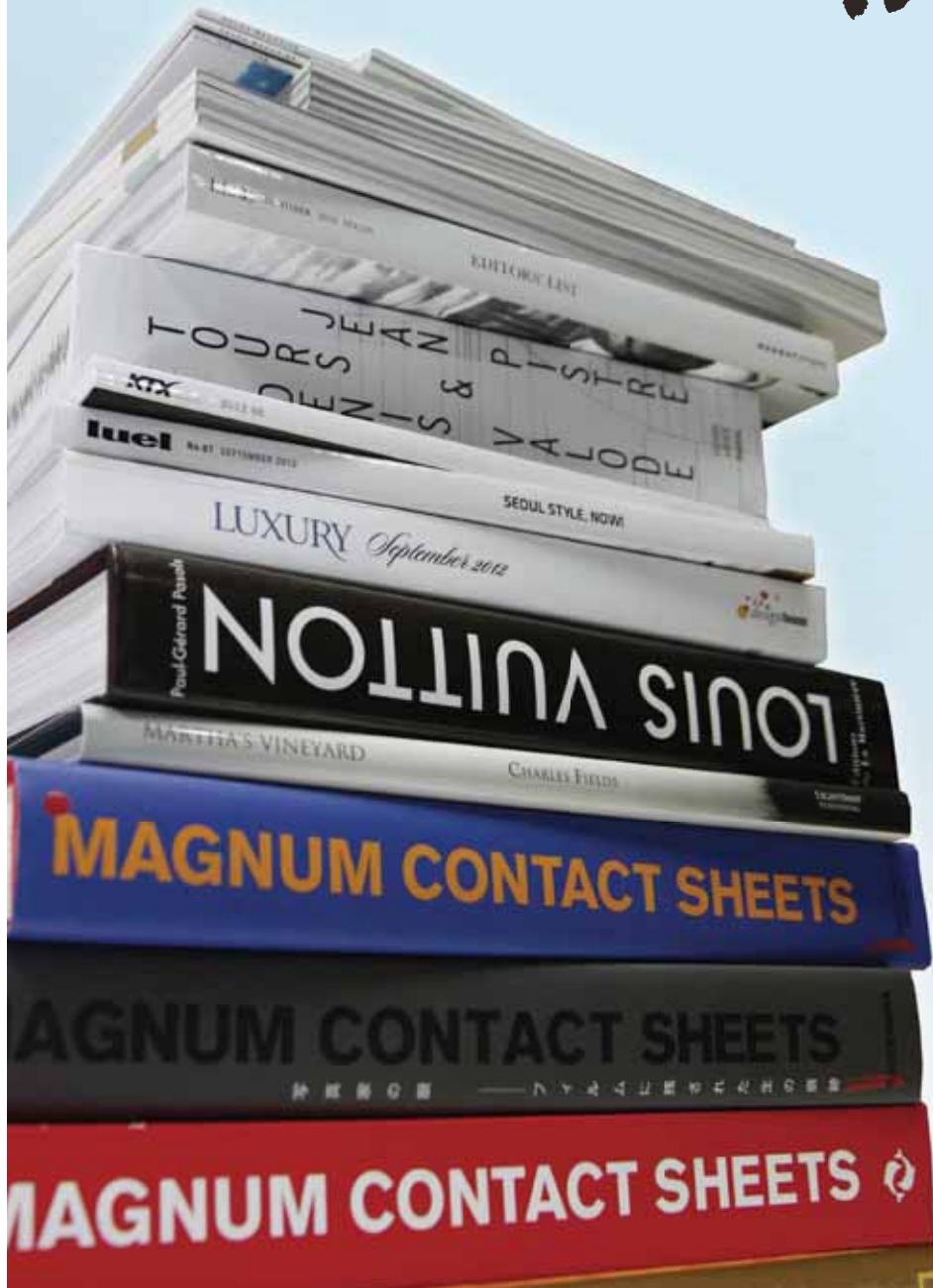
HELLO AUTUMN

책, 책, 책을 읽읍시다

팩컴 클린 마스터

팩컴 패셔니스타 어워드

고객의
꿈이
만들면
명품이다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Pacom

Pacom AAP

Pacom
Books

Book Make



04



08



14

- | | | |
|----|------------|----------------------|
| 02 | 상식톡톡 | 자주 틀리는 맞춤법 |
| 03 | <u>스포츠</u> | 라팍야구장에 다녀왔습니다 |
| 04 | 피플 | 안산공장 김효정 대리 |
| 06 | 도서 | 책, 책, 책을 읽읍시다 |
| 07 | 공감 | 최숙 전무님 |
| 08 | 힐링로드 | 여주신륵사 템플스테이 |
| 10 | 공감 | 구유순 과장 |
| 11 | 칭찬릴레이 | 칭찬릴레이 |
| 12 | 피플 | 팩컴 클린마스터 |
| 14 | 북페어 | 2016 동경 국제 도서전을 다녀오다 |
| 15 | 생활톡톡 | 환절기 건강관리 꿀팁 |
| 16 | 昂케이트 | 패컴 패션스타 어워드 |
| 18 | 찰칵소리 | |
| 20 | 패밀리뉴스 | 올해의 기자상 |
| 21 | 팩컴뉴스 | |

vol.15

2016 October, November, December

CONTENTS

* 한글날 570주년 *

자주 틀리는 맞춤법



곧 다가올 10월 9일 한글날은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이런 우수한 한글을 조금이나마 더 잘 알고 쓰자는 의미에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올바른 맞춤법 사용으로 한글의 소중함을 알고 쓰는 멋진 팩컴인이 되어보아요~! 박효정

낳다? 낫다?

'낫다'는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 라는 의미이며, '낳다'는 배 속의 아이를 몸 밖으로 내놓다. 어떤 결과를 이루거나 가져오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의 영향으로 어떤 인물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다? 바래다?

'~바라다'는 쉽게 표현하자면 '희망하다'의 뜻이고, '~바래다'는 '색이 변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 "네가 좋은 선생님이 되길 바란다.", "여기 벽색이 바랬네."입니다.

결제? 결재?

'결제'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관계를 끝맺는 일을 뜻하며 예로는 결제자금, 전자결제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결재'는 결정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함을 뜻하며 '결재 좀 부탁드립니다.' 와 같이 회사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결제는 보통 돈과 관련된, 결재는 문서와 관련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않? 안?

'않'은 '~아니하다'의 준말로 '안'은 '~아니'의 준말입니다. 예를 들어 '나 밥 않 먹었어.' 와 '나 밥 안 먹었어.' 이때 '밥 아니하다' 먹었어.'는 표현이 이상합니다. '밥 아니 먹었어.'는 풀어서 사용했을 때 표현이 어색하지 않으므로 '안'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되? 돼?

'되'는 '~하'로, '돼'는 '~해'로 바꿔서 사용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로, "학교 가야 되" 와 "학교 가야 돼"를 '학교 가야 하' 와 '학교 가야 해'로 풀어서 사용했을 때 '가야 하'는 없는 말이므로 '가야 해'가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가야 돼'가 맞는 표현입니다.





DAEGU SAMSUNG LIONS PARK !! 라팍 야구장에 다녀왔습니다

라팍이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야구장"의 줄임말이다

기자는 8월의 무더위를 뚫고, 물 대포로 관중들의 더위를 쓱아준다는 대구의 명물 라팍야구장을 찾아가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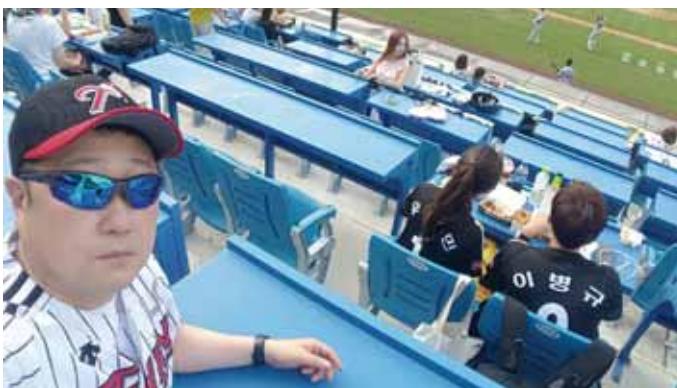
여름 시즌 주말 경기는 저녁 6시에 하기 때문에, 기자는 광명역 2시 50분 KTX를 타고 여유롭게 출발했다. 1시간 30분만에 동대구역에 도착하여 검색을 해보니, 야구장까지 버스와 지하철은 40분, 택시는 15분(9,000원)이 걸린다기에 주저 없이 택시를 타기로 했다. 기사님에게 "라이온즈파크 구장이요~" 했더니, 기사님은 "아, 라팍요." 라며 출발하셨다. 가는 길에 새로 지은 야구장 자랑을 얼마나 하시던지, 이미 구장을 한 바퀴 다 돌아보고 나온 듯 했다.

이야기를 한참 들던 와중에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라팍" 구장에 도착했다.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아무리 크게 응원을 해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한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곳 라팍구장은 원형이 아니라 팔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가 2층 매표소 입구까지 연결되어있는 것을 보고, 관중의 편의를 많이 생각한 구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라팍에는 다른 구장에는 없는 맥주걸이 있다. (타 구장은 맥주보이만 있다.) 그래서인지 맥주를 한 잔이라도 더 마시게 되는데, 참 영리한 마케팅 전략인듯하다.

기자가 라팍구장을 찾았던 날은 무지 더운 날이었기에, 삼성을 응원하는 3루에서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응원단상에서 매회 물 대포를 관중들에게 쏘이주었다. 하지만 1루측 원정 팀에는 물 대포가 날아오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야간이 되자, 세계적인 구장답게 1루에서 3루까지 2층 관중석 앞에 화려한 전광판이 펼쳐졌다. 이 전광판을 보고 싶어서라도 다시 한번 라팍을 찾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매력적인 장관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 귀가 교통편은 자가용 혹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데,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기에 콜택시를 불러도 언제 도착할지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자가용이 없다면 택시를 조금 일찍 부르는 센스를 발휘하는 것이 좋다. 동대구-광명간 KTX는 늦은 시간까지 운행하기에, 일단 KTX역으로 가기만 하면 귀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음 패밀리에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탐사기가 실릴 예정이니 야구팬 분들은 두 눈 크게 뜨고 기다리시길! **이원성**





안산공장 김효정 대리

1. 팩컴에 언제 입사하셨어요?

2010년 1월 26일에 입사했어요. 입사 6년 차, 올해 대리로 승진했어요. ^^\n

2. 안산공장에서 하시는 일 설명 좀 부탁 드려요.

전반적인 생산 및 출고사항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사무 보조 업무와 직원 급여를 맡고 있습니다. 투톱이 직원들 복리후생관리도 하고 있답니다.

3. 군포공장 직원들에게 안산공장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수암 공장에 한 번쯤 들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이면 짙은 녹음이 무성해요. 가을이면 여기저기에 과실들이 열리죠. 물론 겨울은 좀 음산한 기운이 돈다고 할까? 어쨌든 그런 덕분에,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자연을 무척 빼닮았어요. 조화를 중요시 하죠. 작고 소소한 일에서 얻은 성과라 할지라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곤 해요. 그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한다는 건 제게 복 인것 같아요.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4. 남자친구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 계획이 궁금해요.

늘 듣는 질문이라 피하고 싶지만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나 아직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 조금만 더 여유를 두고 그 남자에 대해서 알아가고 미래의 동반자로 적합한지 신중히 고려하려고요. 평생을 좌우하는 일에 대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또, 지금은 자유를 약간만 더 누리고 싶기도 하고요.

5. 팩컴에서 일하면서 힘들었던 일과 보람된 일 듣고 싶어요.

어느 직장을 다니던 애로사항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람을 느끼기 위해선 반드시 난관을 극복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요. 생산된 제품라인이 출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고가 따로요. 특히 생산 스케줄대로 일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간혹 있죠. 이로 인해 타 부서와 작은 마찰을 빚기도 하고, 또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외주업체와의 분쟁까지 겹칠 때면 정신이 온전할 리가 없죠. 그럼에도 일단 컨테이너에 제품이 무사히 실려 나가는 걸 볼 때면 그때의 보람이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6. 원치 않지만, 저희는 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 하시나요? (저는 현풍이가 군포공장으로 오고 나서, 큰 위로를 받고 있어요 ^^)

일단 그 자리를 뜨는 거예요. 피하고 볼 때가 상책일 때가 있더라고요. 가령, 사람들과 사소한 갈등이 있었는데 기분이 몹시 안 좋다. 이럴 때면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를 찾아요. 저희 수암동에는 네 마리의 강아지가 있어요. 브라우니, 캘리, 풍이, 진이. 또 저희 집에도 제가 보살피는 강아지가 있어요. 그들과 몸을 비비며 온기를 나누며 교감을 하다 보면 이러 저런 고민거리들은 어느새 먼 일이 되고 말더라고요.

7. 여가 시간에는 주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요.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 완성하는 걸 참 즐거워했어요. 손재주가 그리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재능과 상관없이 좋아하는 일은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뜨개질에 열을 올리는 중이에요.

8. 올 여름 유난히 더웠는데, 여름휴가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올해 유독 무더위가 심했어요. 휴가 기간 내내 이런 메시지도 매일같이 오더군요. ‘폭염경보가 내려졌으니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편이라 최대한 바깥출입을 삼가고 도심 속의 휴가를 즐겼어요. 영화관람을 다섯 편이나 하고 커피매장을 열 번이나 들락거렸으니 말 다했죠.

9. 업무 진행하면서 군포공장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군포공장이 늘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그 외중에서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 드려요. 앞으로도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금처럼 화합하는 분위기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10. 올해 대리로 승진하셨는데, 승진 후 변화한 점이 있나요?

이쯤에서 수암 공장의 우두머리 권기형 부장님을 언급해야겠네요. 탁월한 재치와 노력한 말씀씨, 더욱이 다양한 기계들까지 손수 설계하는 능력 있는 분. 그분은 항상 업무에 있어서 창의적인 사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딱딱한 명령체계보다는 화기애애한 조직문화를 선호하세요.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권위적이라기보다는 다들 친한 오빠, 언니 같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입사 이래 늘 한 가족 분위기 속에 지내온 터라 승진에 대한 체감은 사실 없어요. 콕 짊어 하나 변한 게 있다면 보너스가 오른 거 정도?

11. 마지막으로 팩컴 가족에게 한 마디 부탁 드려요.

올해로 팩컴 가족에 소속된 지 벌써 6년에 접어들었어요. 새 록새록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간 새로 입사한 사원들도 있고, 개중에는 이곳을 떠난 분들도 계세요. 참 오랜 시간이었는데 그 속에서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넨 적 없는 분들이 부지기 수에요. 내성적인 성격이라 쉬이 다가가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려요. 아마 사보에 실리는 일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다행스럽게 팩컴 가족 여러분께 정식으로 제 소개를 드리게 됐네요. 아무쪼록 팩컴이라는 기업이 무궁한 영광을 누리며 승승장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선영

팩컴 패밀리가 추천하는

책, 책, 책을 읽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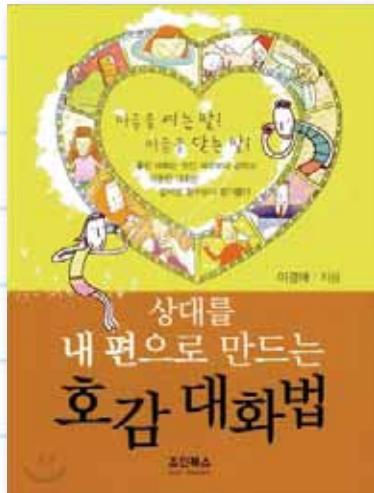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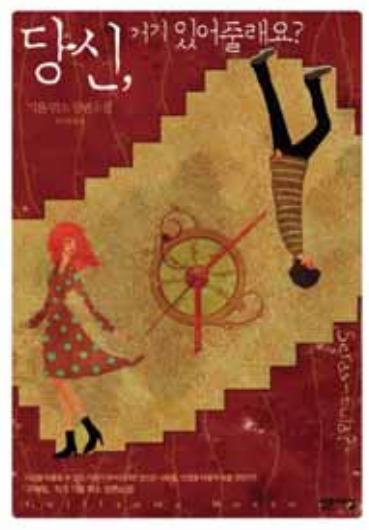
하늘은 높고 맑은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독서의 계절 가을!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꼭 읽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책 한두권 쯤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팩컴 패밀리가 추천하는 책, 책, 책을 읽읍시다.' 무슨 책을 읽어볼까 고민하셨던 분이 있다면 지금 추천해드리는 이 책들을 읽어보시길! **P박효정**

북메이크 김운영 사원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 기욤 뮤소

추천 개인적으로 '시간여행'이라는 소재를 좋아한다. 대학교 1학년 때 친구에게 추천 받아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을 읽고 기욤 뮤소의 다른 책도 찾아보게 될 정도로 재밌었다. 아무래도 시간여행을 소재로 하는 책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평이 많은데, 이 책은 워낙 작가가 필력이 좋아 그런지 페이지가 순식간에 넘어간다. 찾아보니 곧 영화로도 개봉예정이라는 소식! 영화로 제작 될 만큼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으니 다른 팩컴 가족들도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줄거리 주인공 엘리엇은 명망 있는 외과의사로 성공적인 삶을 열어왔지만 한 가지 떨쳐버릴 수 없는 회한이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연인을 사고로부터 구해내지 못한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만난 신비의 노인으로부터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열 개의 일약을 얻게 된 그는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잡는다. 그러나 죽은 일리나를 살려내면서 그의 삶은 예기치 못한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가는데….



전산팀 이건희 사원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호감 대화법 - 이경애

추천 대학시절 동대문에서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 탓에 손님을 응대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던 중 우연히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을 통해 사람은 누군가의 말 한 마디로 힘을 얻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대화 태도와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 팩컴 가족들도 이 책을 읽고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대화들로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호감 가는 팩컴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줄거리 이 책은 딱딱하게 대화의 기술이나 스피치 방법을 저술한 책이 아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대화의 태도나 예절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다. 특히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이며 소통이란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올 여름...

엄청 덥다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올 추석은 예년보다 더 이르네요.

지난주 끽감이 유명한 상주를 다녀왔는데, 상주의 감나무에 감은 잔뜩 열렸어도
감빛 나는 감은 하나도 없이 다 초록색 이었습니다.

매년 추석이 오고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갑니다...
어릴 때 추석은 예쁜 한복에 고무신 신던 철없이 좋은 날이었는데...
이 나이 되어보니 추석은 올 한해 농사 다 짓고 추수해야 하는
정리의 시간으로 올 한해도 다 가는구나 하는 사인으로 다가옵니다.

올 한해는 어땠어요? 좋은 일이 많으셨나요?
올 초에 계획한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셨나요?
전 올해가 참 감사한 해였고, 제 스스로가 대견한 해였습니다.

작년 겨울 갑자기 아팠던 다리로 인해 올 1월부터 시작한 운동을
지금까지 계속 한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해입니다.
언젠가 친구가 자기가 이리 운동을 좋아하는 줄 몰랐다며
운동을 하며 느낀 감사함을 전했는데 저 역시 조금은 다르지만
운동을 하며 제 스스로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함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감사한 추석입니다.

긴 연휴에 가족 간에 화목하시고 여유로운 시간을 계획 있게 즐겨 보세요.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은 고즈넉한 고궁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건 어떠신지요.

남은 시간도 열심히 살아, 2016년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때
참 감사한 한해였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하며,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최축 올립



여주 신륵사 템플스테이



나무들이 고운 색의 옷으로 갈아입는 가을에는, 고단한 현실을 잠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고즈넉한 사찰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는 건 어떠세요?

언젠가 갔던 관광지의 절에서 [템플스테이]라는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템플스테이가 무언고 해서 알아보니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에 머물면서 절의 생활을 체험해보고, 명상과 기도를 하며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 종교에 상관없이 참가 가능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1박2일 숙박은 물론 세끼 밥까지 쟁겨 먹을 수 있다고 한다. 나중에 꼭 체험해봐야지 하고 마음 속으로만 품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동안 가보고 싶었던 템플스테이에 참여해 보기로 했다.

많은 사찰들 중 내 마음을 사로 잡은 건 경기도 여주에 있는 신륵사였다. 남한강 변에 위치한 수려한 사찰의 사진에 마음이 끌려 신륵사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 예약 신청을 했다. 보통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형과 절의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으로 나뉜다. 나는 종교가 천주교라 체험형 프로그램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휴식형 템플스테이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수련자들이 자유롭게 체험 프로그

램에 참여할지, 자유 시간을 가지며 휴식을 취할지, 그때 그때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템플스테이 첫날, 여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오후 2시쯤 도착했다. 터미널에서 신륵사까지는 택시로 5분 정도 거리로, 매우 가까웠다. 신륵사 매표소를 지나 조금 걸어가면 원편에 절과 분리된 신식 한옥 건물들이 있는데, 그곳이 템플스테이 사무실과 숙소였다. 템플스테이 사무실로 찾아가니 담당 보살님께서 수련복과 밀집모자를 주고 1박2일 동안 머물 방으로 안내해 주셨다. 생각보다 컸던 방에는 무려 천장형 에어컨이 달려 있었고, 숙소의 방마다 개별적으로 화장실이 갖춰져 있었다. 방은 나를 포함해 2명의 대학생 친구들이 함께 쓰게 되었는데,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오면 한 방을 쓰지만 나처럼 혼자 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방을 함께 써서 외롭지 않게 해준다고 하셨다. 저녁 공양(식사) 때 까지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마침 그 날 강변에서 열린 방생법회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 공양 후 보살님께서 수련자들을 데리고 사찰



을 돌며 신륵사의 역사와 문화재들을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범종을 치는 체험도 해볼 수 있었는데, 종의 짜렁짜렁한 울림이 몸에 전해지자 소란스럽던 마음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드는 듯 했다. 저녁 예불이 끝난 후에는 스님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체험하는 다른 수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주머니 한 분과 대학생 한 명이 나처럼 혼자 왔고, 중년 부부 한 쌍과 내 룸메이트 들인 2명의 대학생들이 휴식을 찾아 이 곳에 찾아 온 것 같았다. 차담을 나누며 불교에는 신이 없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과 수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다음날 새벽 5시, 월송현이라 불리는 강변에 위치한 정자에서 일출을 보며 아침 명상을 한다고 하여, 일찌감치 준비를 끝내고 숙소를 나섰다. 룸메이트들은 새벽 예불에 참여한다고 먼저 나간 상태라, 혼자 월송현까지 향하는 캄캄한 길을 핸드폰 손전등을 키고 달달 떨며 머리 속 지도를 더듬어 걸어가야 했다. 월송현에는 새벽 예불에 참여했던 수련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나도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왜 가로등 하나 키지 않는가.. 절이라 귀신은 없겠지 등등 잡생각이 떠올랐지만, 시간이 지나자 주위에서 들리는 벌레 우는 소리, 강이 흐르는 소리 등에



정신이 집중 되며 마음이 고요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기대했던 일출은 아쉽게도 날이 흐려 볼 수 없었다.

아침 공양을 마친 후 자유시간 동안에는 신륵사 뒷산을 산책하고 내려와, 월송현 정자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직 관광객들이 입장할 시간이 아니라 사찰 내에 사람이 없던 덕분에, 월송현을 혼자 독차지 하고 와불처럼 누워 남한강을 유유자적 구경하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림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나처럼 홀로 조용히 시간을 보낼 때 휴식이 되고 충전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달콤한 휴식 시간이 아닌가 싶었다.

마지막 체험은 108배를 하며 염주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108배는 절을 한번 할 때 마다 의미가 있어, 그 의미를 묵상하며 절을 한 후 염주를 한 알씩 실에 꿰면 되었다. 자신이 완성한 묵주는 기념품으로 가져가서 힘들 때 108배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할 때 쓰라고 하셨다.

점심 공양을 끝으로 1박 2일의 템플스테이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함께했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방정리를 한 후 108배의 후유증으로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신륵사 일주문을 나섰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현실의 강박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번 가을이 가기 전에 풍광이 아름다운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해보는 걸 추천 한다.

신청방법 1. www.templestay.com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사찰 선택 후 신청 2. 네이버에서 [템플스테이] 검색하면 지역별로 템플스테이 신청 가능한 사찰 목록이 나옴 3. 02-2031-2000 (대한 불교 조계종 한국 불교 문화 사업단)에 문의 **비용**. 3~6만원 (1박 2일) **프로그램**. 참선·스님과의 차담·발우공양·예불·108배·연꽃만들기 (사찰마다 다를 수 있음)

박미선

가을을 맞이하며..



찌는듯한 여름이 지나고.

청명한 가을이 왔네요.

봄은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주지만.

가을은 풍요로움과 너그러움을 주네요.

있었던 일도 없었던 일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가을을

우리는 축복받은 이가 틀림없네요.

이 가을에 나를 위해

등산이란 걸 해보시면 어떨까요.

한번의 등산이 보약 한첩 먹는 것

보다 좋다는 걸 아시죠.

사랑합니다.

수암동 구유순과장

칭찬 릴레이!

이번 가을호를 훈훈하게 데워줄 칭찬 릴레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두 정리하고 보니, 칭찬보다는 “그냥 하고 싶은 말 릴레이”쯤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뭐 어떤가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그럼 칭찬릴레이 스타트!

생산관리본부 김희수 차장님 >>> 제본사업본부 안명철 이사님

“생산의 시작부터 출고까지, 팩컴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군분투, 노심초사, 주경야독, 동분서주하시는 안명철 이사님! (기자: 사자성어 공부도 시켜주시고, 일석이조….) 듬직하게 우리 회사를 지켜주시는 안 이사님 덕분에 늘 든든합니다요. ^_^ 이제는 건강 생각하셔서 금연, 금주에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이사님 없으면 팩컴은 누가 지키나요?”



제본사업본부 안명철 이사님 >>> 제본사업본부 무선팀 김주일 대리님

“김주일 대리를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근면, 성실, 책임감 등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물론 일도 잘하고, 성격도 모난 데 없이 좋고, 끝~~~^^(기자: 몇 마디 더 해주세요….)”

제본사업본부 무선팀 김주일 대리님 >>> 제본사업본부 소대용 사원

“제본 부서 여러 파트의 일을 동시에 진행하면서도 한 번도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여러 사람의 비위까지 맞춰 가면서 인원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연장자로서도 배울 점이 너무 많은 직장 동료이자 동생이라 생각해요. 저라면 아마도 못할 것 같아요. ^^”



제본사업본부 소대용 사원 >>> 해외영업부 창조팀 이운정 대리님

“이운정 대리님은 우선 매사에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고 성실해요. 그 준비성이 카렌다 시즌에는 특히 진기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흔히 빠릿빠릿하다고 표현하지요. 일 외적으로도 항상 밝고 털털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한 마디로 악당이에요.^^(기자 : 칭찬이라고 합니다….)”



이번 호 칭찬 릴레이의 마지막 주인공으로는 이운정 대리님께서 뽑히셨네요! 짹짜짜!
끝 없는 릴레이로 쭉쭉 이어가고 싶지만 지면 상에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다싣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칭찬릴레이에 참여해주신 팩컴 가족
분들께 감사 드리며, 우리 모두 평소에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표현하고 칭찬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연지

Clean master 팩컴 클린마스터!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시간,
팩컴의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분주히 움직이며 회사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팩컴의 클린마스터! 청소원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Q.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A. 윤숙희, 김영애 입니다.

Q. 두분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윤숙희 청소원님. 만으로 말할까요? 호호호. 올해 68세 되요.

김영애 청소원님. 저도 만으로 61세예요.

Q. 근무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윤숙희 청소원님. 이제 2년 조금 넘었어요.

김영애 청소원님. 저는 딱 1년 되가요.

Q. 사시는 곳은 어디세요?

윤숙희 청소원님. 안양 3동에 살아요. 안양중앙시장 너머의 안양예고 근처예요.

김영애 청소원님. 안양 호계2동에 살아요. 회사에서 가깝죠.



Q. 두분 다 안양에 사시는군요. 그럼 출근은 언제 하세요?

윤숙희 청소원님. 새벽 5시까지 출근해야 해서 4시 30분에 집에서 나와요.

김영애 청소원님. 저도 그때쯤 남편이 차로 태워다 줘요. 이른 시간이라 버스가 없거든요.



Q. 이른 시간에 출근하시네요.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A.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예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끝내야 하는 일이 있어서 5시에 와도 시간이 부족할 때는 4시 30분에 올 때도 있어요.

Q. 하시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A. 5시 출근하면 먼저 각 화장실을 청소해요.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 변기, 세면대를 닦고 비품을 채워두죠. 그 다음에는 4층 사무실 청소를 한 후에 계단 구역을 나눠서 따로 청소를 해요. 2주에 한번씩 화분에 물도 주고 있어요.

Q.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급하게 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휴식은 어떻게 취하시나요?

A. 옥상에 물탱크 저장고 한쪽에 휴게실이 있어요. 전에 일하시던 분들이 버리는 상자 같은 것들을 쌓아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불편하고 벌레가 많이 생겨서 힘들었어요. 이번에 공사 하시면서 임시로 안 쓰는 팔레트로 평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 앉아 집에서 싸온 아침도 먹고 잠시 휴식도 취하고 있어요.

Q. 휴식 공간이 습해서 겨울에 많이 추우실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A. 청소 도구를 둘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총총마다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 청소 도구를 쟁마다 갖고 돌아다녀야 해서 청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어요. 청소 도구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일하는 직원 분들도 청소 하실 때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걸레 세척통이 있으면 좋겠어요. 대걸레를 세척할 곳이 없어 그냥 화장실 바닥에서 해야 하는데, 기껏 청소한 화장실이 지저분해져서 다시 청소를 해야 할 때가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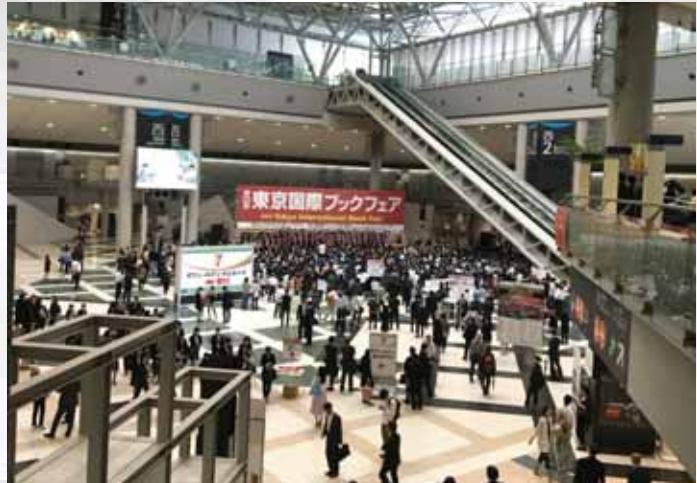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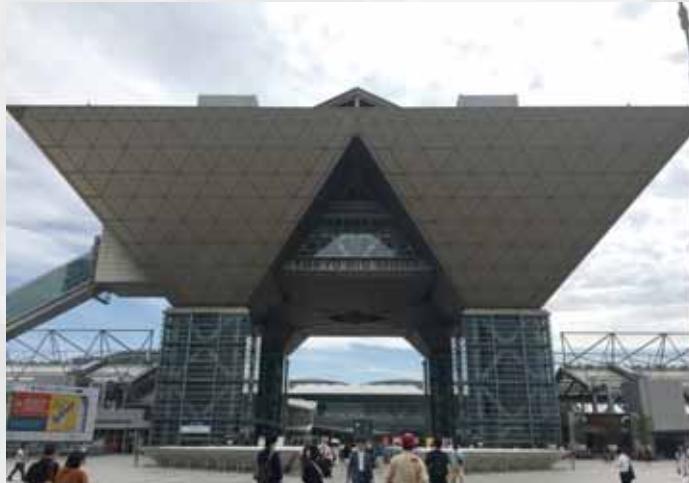
Q. 고충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팩컴에서 일하시면서 좋은 점을 말해주세요.

A. 회사 분위기가 좋아요. 직원 분들이 친절하신 분들이 많구요. 경비 아저씨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박씨 아저씨), 이원성 부장님께서도 필요한 부분이나 고충에 대해서 많이 들어주세요.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미소와 웃음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윤숙희 청소원님과 김영애 청소원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궂은 일을 묵묵히 하시는 두 분을 회사에서 마주친다면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건네 주셔서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미선**

Tokyo International Book Fair

2016 동경 국제 도서전을 다녀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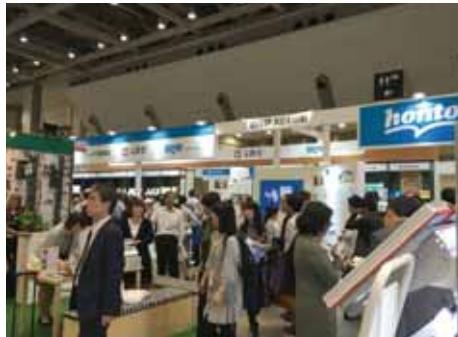


동경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2016 동경 국제 도서전(Tokyo International Book Fair)에 다녀왔다. 올해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작년까지는 전시 일자를 업계와 일반독자, 둘로 나누어 진행했었지만 올해는 100% 일반독자만을 상대로 한 이벤트 형식의 도서전으로 변경된 것이다. 개최일이 7월에서 9월로, 평일에서 주말로 바뀐 이유도 독서의 계절인 가을에 일반독자들이 도서전에 참가하기 쉽도록 주말을 겨냥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3일간 세계20개국에서 470사가 참가하여 40,564명의 사람들이 방문하였고, 작년에 비해 규모는 반으로 줄었지만 방문객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 대중으로 상대로 한 도서전이라 그 대중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가장 큰 인쇄사로 도판과 다이Nit폰을 꼽을 수 있는데 이번에 도판은 아예 참가를 하지 않았고 다이Nit폰은 자사의 E-book “honto”를 중점으로 내걸며 대세는 E-book이라는 현 시장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는 이번 도서전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일본 인쇄출판시장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일본과의 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를 찾아볼 필요성을 느꼈고, 일본 인쇄출판시장에 대한 정보와 연구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 도서전을 계기로 일본 인쇄출판시장에 대한 고민을 보다 심도 있게 해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손록희



환절기 건강관리 꿀~팁!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도 결국은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 날씨가 너무나도 반갑지만,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일수록 더욱 건강 관리에 힘써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상식이지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가을철 건강관리 꿀~팁들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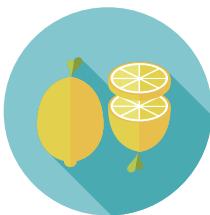
하나, 외출 후 손 씻기!!

선선한 날씨 덕에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요즘, 외출 후 손발 씻기는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손을 자주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염성 질환의 70%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가히 모든 건강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 수분 보충에 힘 쓰기!!

여기에서 수분 보충이라 함은 피부의 수분, 그리고 마시는 물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해요. 환절기 특유의 차고 건조한 공기는 우리의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므로, 우리 모두 보습제를 꼭 챙겨 바르는 습관을 들여보도록 해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체액 순환을 도와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 오늘은 믹스커피 대신 가을에 어울리는 따뜻한 차 한 잔씩 어떨까요?



셋, 비타민 풍부한 제철 과일 섭취하기!!

제 아무리 값비싼 보약이라도 제철 과일에 비할 바가 있을까요. 가을철 환절기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제철 과일을 드셔 보세요. 비타민이 풍부한 감, 기관지에 좋은 배, 두 말하면 잔소리인 사과까지. 과일 값이 많이 올랐다지만, 건강을 위해 식전, 혹은 후에 과일 한 조각씩 드시고 건강을 챙겨보세요.



넷, 가벼운 운동과 숙면 취하기!!

모두가 잘 알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끝판왕, 운동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점심 식사 후 30분, 가을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로 시작해 보아요. 물론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하루 최소 30분 햇볕을 쬐게 되면 숙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우리 모두 낮 동안은 가벼운 운동, 밤에는 숙면을 취하여 가을철 깨지기 쉬운 생체 리듬을 회복하도록 해요.



다섯, 마음의 건강 챙기기!!

흔히 '가을을 탄다'고 하지요?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해가 짧아지며 일조량이 줄어들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활동량이 저하되고 무기력증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을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하루 최소 30분 햇볕을 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독서, 여행, 음악 감상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추천해 드려요.

마지막으로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많이 크니, 가볍게 걸치고 벗을 수 있는 옷을 하나쯤 구비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을 상식들이라 꿀팁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하지만, 그럴수록 일상 생활에서 더 의식적으로 실천하셔서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 챙기는 건강한 팩컴인이 됩시다! 이연지

Pacom Fashionista Award

팩컴 패션리스타 어워드

띵동! 9월 3일, 팩컴 전 직원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패밀리 양케이트 <PACOM의 패션리스타를 찾아라!>가 시작된 모양입니다.
많은 후보들이 매우 치열한 경쟁을 펼친 가운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팩컴의 패션리스타들을 소개합니다!!

★ 공동 1위 ★



해외영업부
이연지 사원

아방가르드 하고 특이한 패션이 인상적이에요
심플하면서 센스 있는 옷차림!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패션을 선보이는 사원~



경영기획부
정세미 사원

패션리스타의 정석이죠, 옷을 잘 입어요
딱보면 척이죠~ 직접 보면 알아요
예.뻐.용!! 까!



2위

생산관리
신규현 대리

마치 옷과 한 몸이 된 것처럼,
자신과 어울리는 옷을 잘 소화합니다.

신 도시여성스타일의 정석!
시크한 표정과 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 외 후보들과 선정이유

김경수 사장님

정장은 물론 캐주얼도 잘 소화하신다.

스타일, 색상, 트렌드를 모두 반영하는 멋쟁이 사장님!

생산관리부 주명희

항상 다양한 패션과 스타일을 선보이시며 완벽하게 소화하신다.

제본사업본부 하상진

평범함은 거부한다! 몽골 원주민 조폭 스타일!

제본사업본부 정순이

나이를 잊게 하는 멋진 패션을 잘 소화하십니다.

제본사업본부 이성만

깔끔함이야말로 직장인으로서 최고의 패션 이죠. 항상 와이셔츠에 양복 바지,
구두까지 갖춰 신으신 모습이 언제나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제본사업본부 이종수

항상 단정한 모습이 멋지십니다.

제본사업본부 박성용

옷을 매우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으시는 분입니다.

해외영업부 황철원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을 선보이시는 직장인 패션의 정석!

해외영업부 홍석준

PACOM의 댄디남. 가끔 출근시간에 만나면 옷을 잘 입는다고 느낍니다.

해외영업부 손록희

군포에 새로운 바람을 불고 온 신선한 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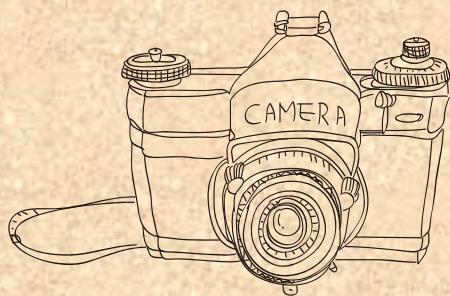
해외영업부 주선영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다양하게 코디를 하는 능력자!

경영기획부 이건희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들 하죠. 얼굴이 이미 완성된 건희씨 애말로
PACOM의 패션 니스타 아닐까요?

선정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찰칵소리

E semii@gopacom.com

재밌고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다면 언제든 보내 주세요!





소리라... 그대에게 보내는 가을 편지

기인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일상으로 돌아왔구나! 연휴 동안에 들떴던 감정들을 조절하고 훈하니 남아 있는 여운들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열심히 살고 있구나.

언제부턴가 이메일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카카오톡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SNS에 파묻혀 살면서 손 편지 쓰는 것을 잊고 살았었는데 오늘처럼 가을 아침 서늘한 공기가 볼을 스치고 지나가면 뭔지 그대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

커피가 맛있는 계절, 이 계절에 아침에 일어나 아메리카노든 카페 라떼든 따뜻하게 내린 커피를 마시면 향긋한 따끈함이 허끌으로 전해지는데… 이런 가을 날 아침에 그대와 같이 커피를 마셔본 것도 참 오래된 것 같구나. 무엇이 그렇게 바쁘다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 그런 여유한번 못 가지고 사는지 못내 아쉬울 뿐이다.

늘 그랬듯이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가고 돌아켜보면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인간이 가진 욕망 때문이겠지. 그치만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게 없으면 어때?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히 건강하게 여기까지 왔으면 잘한 거지! 지난주에는 친했던 친구 하나가 간경화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빈소에는 그의 영정 사진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슬픈 통곡 소리가 서럽게 메아리치더구나. 거기서 또 한 번 느꼈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부귀영화, 금준미주, 옥반가요는 건강을 잃으면 모조리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래 우리 열심히 살되 건강은 지키면서 살자!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가는 바람에 주위의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슬픔을 주는 그 친구처럼 나쁜 사람이 되지 말고 제때에 건강 확인하고 살아 있는 동안은 기면서 살기 보다는 순간을 즐기고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하고 좋은 생각 먼저 하고 살자! 바쁜 일상이 발목을 잡더라도 가끔은 가을 아침처럼 같이 커피도 마시고 미술관에 가서 여유를 부려보면서 살자. 또 가끔은 목적지를 정해놓든 정해 놓지 않든 부담 없이 훌쩍 여행도 떠나자!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던 친구도 연락해서 만나고 마음에 늘 새겨 두었던 은사님도 찾아가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감사하고 여기고 자주 전화 드리고 자주 찾아가서 안부도 물어보자! 애들 키우느라고 배우지 못했던 통기타도 배워서 김광석 노래도 한곡 부르자! 가을에는 무얼 해도 다 어울리니까 올 가을에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살자꾸나!

청춘이 평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큼 가장 짧듯이 일 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인 가을은 또 그만큼 짧다. 짧은 가을날 가능하면 여유를 가지고 아름다운 시간들 보내면서 즐기고 힐링 하기를 바라본다. 그리고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오직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 보기를 기원한다. 그러면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이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도 느낄 수 있고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라 믿는다! 그대가 걱정하는 것들 때문에 못하겠다고?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황 철 원



PACOM NEWS



화재예방 교육

지난 7월 월례조회에서 군포소방서 화재예방과의 화재예방 교육이 있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실제로 사무실 및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모습을 cctv 녹화 영상으로 보여주었다. 순간의 불씨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하는 모습은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또한 소화기 사용법에 대하여 교육하며 일반 가정에서도 소화기는 필수로 보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방화재훈련

7월 7일에는 팩컴 군포공장에서 소방화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에는 군포공장 전 직원이 참여하였으며, 3층에 가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5명이 탈출하지 못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후, 탈출하지 못한 5명은 화재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하여 구출 신호를 보내었고 사상자 없이 모두 안전하게 구출되었다. 특히 송수길 사원과 손록희 사원의 리프트 탈출은 실제 사고현장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었다.



팩컴AAP 상반기 결산 워크샵

팩컴AAP는 지난 8월 13일, 기장급 직원들과 함께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생산성 향상

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대회의실에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북메이크 워크샵

지난 7월 말에는 북메이크 임직원들이 대회의실에서 워크샵을 가졌다. 샘솟는 아이디어를 공유며 공격적인 영업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서울인쇄대상 금상 수상

팩컴코리아는 제11회 서울인쇄대상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해외영업부 도전팀에서 진행한 작업인 Sidewalk Chalk Tagging-package (Part Time 출판)를 출품하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며, 시상식은 7월 21일 16:30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공장 환경개선 공사

팩컴 군포공장은 지난 8월 한 달간에 걸쳐 공장 전체의 냉,난방 설비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였다. 이번 냉난방 시스템 도입으

로 그 동안 층별로 개별 관리하던 시스템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으로 한 단계 도약한 것이다. 또한 전 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도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지난 9월 24일, 팩컴코리아 관리부 김수민 사원이 버진로드에 올랐다. 대학시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마장에서 만나, 10년 간 연애하여 행복한 결혼에 골인하였다. 혼남인 신랑 김효근은 궁합도 보지 않는다는 네 살 차이의 연상이라고 한다. 특히 이날 결혼식장에서 동네 오빠로 알고 지내던 가수 장석현씨가 축가를 선창하여 더욱 빛나는 예식이 거행될 수 있었다.

입사를 축하 합니다

팩컴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본사업부 정합팀 [이정희 사원], 양장팀
[이승범 사원, 전영숙 사원] 이원성





[북메이크]

단 한권의 책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북메이크는 “대한민국 1위 인쇄 수출 기업” 팩컴의 소량 인쇄 제작 서비스 브랜드로,
2008년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저자가 되는 그날까지 책 1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서비스 가치를 실현하고자 5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팩컴코리아 www.gopacom.com | 북메이크 www.bookmake.co.kr | 문의 : 1577-3669